朝鮮日報 朝刊

社說

齋藤內閣總辭職

一

오래동안 끌고 끌을듯하든 齋藤內閣의 進退問題는 二日저녁 決定을보고 三日午前閣議를거처 午後一時半 正式으로 辭表를 捧呈하얏다. 總辭職은 旣定的事實이엇고 오즉 時間만이 問題이엇지마는 齋藤內閣의 總辭職을決定的으로 促進시킨것은 最近의 司法省의 報告일것이다. 最近의司法省의 報告라고 하고單純히司法省의 報告라고안는것은 黑川前大藏次官의 瀆職事實은 이미判明한事實이엇스나 某某前閣僚及現閣僚가 所謂 帝人事件에關聯한것은 最近에明白해진때문이다.

그러므로 大藏次官만의瀆職事件이면 大藏大臣의 引責辭任으로 齋藤首相이 반듯이引責辭任할 必要가 업다는責任可分論도 成立되나 現閣僚가瀆職事件에 關係한以上 首相이 奏薦의 責任을지지안흘수 업슬것이다.

二

勿論 最近의報告가아니라도 齋藤內閣이 全然 無責任할수는 업섯다. 왜그러냐하면 大藏次官을 監督하는 高橋藏相은 引責辭任치안흘수업고 高橋藏相이 辭任한다면 齋藤內閣의 所謂三長老의 一人이辭職함에잇서서 事實上 內閣이成立될수업다 또 이와 反對로 大藏次官이 無罪로되엇다하드래도 小山法相은 責任을지지 안흘수업섯스니 이미 柴田翰長, 岡田海相, 內田外相, 荒木陸相, 中島商相, 鳩山文相等의 更迭이 잇섯고 또 法相까지辭職되면 齋藤首相도 또한 晏然할수는 업섯다. 그러나 일이現閣僚의 身上에 及함에잇서서 齋藤首相은 決定的으로 辭職을決意치안흘수 업게된것이다

三

後繼內閣에 對해서는 이글을쓰는 刹那까지 混沌해잇다 齋藤子에의 大命再降下說, 鈴木說, 宇垣說, 平沼說, 淸浦說, 一木說, 近衛說, 山本說等等. 齋藤子에의 大命再降下說은 다른適任者가 업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나 憲政의 精神이 政治의 責任制度에 잇다할진대 平時가트면 政治的責任으로 辭職한 齋藤子에게 다시 組閣大命이 降下하리라고는 밋기어렵다. 그러타고 各人各人의 處地를본다면 모다 不足한 條件이 잇다. 鈴木은 政黨 特히 政友의 信用이 아즉까지 恢復되지안는點으로 濟藩하고 宇垣은軍部一部의反對와 海軍省 眼野의 聲明으로 거이流產되엇고, 平沼는 파시트라하야 批難이잇고, 淸浦는 無能하다는評이 잇스며, 一木은背景이 弱하다는것이다. 이러하고 보면 아즉 未知數의 近衛公가튼이가 物色될 可能性이잇스나 方今 北米에 旅行中이니 그歸國을 기다릴수도업고 山本達雄도 政界出馬를 不肯하니 可能性이적으나 只今까

次期政權은누구에?

大命再降下說

園公短期滯東으로보아有力

四日即日退東豫定

【東京電話聯合】 齋藤內閣總辭職에依한後繼內閣에對하여는 三日西園寺公에게 御下問하시엇슴으로 老公은急遽四日午前九時四十分東京驛着入京하야直時駿河臺本邸에入하야 牧野內府一木樞相等重臣의意向과 政界의實狀을詳細聽取하고 一九三五、六年의非常時에備할 適當한人物을 後繼內閣의首班으로奏薦하리라고觀測되는바 何人이責任者로써 奏薦될는지는 依然不明하나 同公이四日中에 後繼內閣의首班을奏薦하고 同日午後四時二十五分東京驛發同七時十八分御殿場到着車로 退京하는것으로보아 大命再降下說이 가장有力視되여잇다

【電通東京電話】 西園寺公은 四日午前九時四十分來東하는데 別項과如히 同公은即日午後四時二十五分東京驛出發 同七時十八分御殿場驛着列車로 退京하기로되엿다 即園公은明四日上京後一旦駿河臺의 自邸에入하야 御下問에奉答하기爲하야 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하고, 後繼內閣組織者에對하야 御下問을拜한後一旦衣服을고처입고 宮中에서重臣과會見하고 政局收拾에對한 意見을交換할터인데 公은奉答할 바를 決定하야 更히天皇陛下께 拜謁, 御下問에 奉答하고 宮中을退下하야 即日로, 退京할것으로 본다. 如斯히 西園寺公의奉答이, 短時間에, 行하게되는 點으로보아 大命은 齋藤首相에게 再降下하지나안홀까 하는觀測이 가장有力하게되엿다 即齋藤首相의 拜辭에 對하야는 相當히 準備時代가 잇서그 사이 西園寺公과 宮中重臣사이에 善後工作이 充分한 結果 西園寺公의 胸裡에는 이미奉答事項이 確定하야잇스며 그 結果如斯히 迅速하게 奉答이 行하게되는것으로推測된다

시의 功績과 今後 高橋等과 아울러 組閣事件이 조흔짝으로보아 政外로 組閣命令이 나 나리지안을런지 疑問이다 西園寺公은 일부 御殿場의 現前의 前例에 依하야 일부 後繼內閣에 對하야 奉答 再昨年五月 齋藤內閣出 로저

대 向東한다하니 大任을 可히解散할만하거니와 西園寺公도 또한 이 情勢에 잇서서 決定을 보기에 苦心이 잇슬것이다. 財界와東京의中間에서서 能히現時局을擔當할人物을 奏薦할 人物에 잇스니 齋藤首相과 가튼 中間的人物이 推薦될것은 足히 推測되거니와 果然 그누가 그 任에 當할가는 興味를 끄는바이다.

陸相留任안허도

傳統方針은不變

渡邊、眞崎、荒木三大將中推薦

南大將도候補豫想

【電通東京電話】 再降下의境遇에 特別事情이 發生치안는限林陸相으로서는 留任치안흘것으로, 볼뿐안이라 後任陸相決定에相當한 難關이잇슬것으로 推察되는데 再降下以外의內閣出現의境遇는 如何한 人物이 首班이되든지 大體로林陸相은 留任할것으로 萬若留任치안케되다하드래도 圓滑이後任陸相을 보낼것으로본다但이境遇에林陸相 또는다른人物이 陸相이될을不問하고 陸軍의傳統方針에基하야 相當히條件을附할것이며 그리고 그條件의核心인것은 非常時局突破에 重點을置하고 財政의根本的調整에잇는듯하다 林陸相이 留任치안코, 다른人物을陸相으로 推薦하는境遇의候補者는渡邊錠太郎、眞崎甚三郎、荒木貞夫(古參順)의三大將中에서될것이며 境遇에依하야는 南次郞大將이候補될것으로 豫想된다

各勅選推薦事情

【東京電話聯合】 勅選欠員十二名을三日閣議에서 補充하엿는데其中土方久徵氏는多年財界에 對한 功勞에依한것이며小山法相은 司法行政의功勞에依한것이며 黑崎長官은前例에依하야 推薦된것이며 宇佐美滿洲國顧問은多年地方行政賞勳局 資源局時代의 功績에依한것이나前日滿洲國赴任當時부터 有力한 候補이엿다 그리고朝鮮으로부터 勅選에든 有賀氏는宇垣總督이 推薦한四人中 朝鮮財界의功勞者요 中川臺灣總督이 推薦한 峯顯參氏는 外地行政의功勞者

三南農村瞥見記

麥嶺을넘어서

細農民의可憐한生活

【三】 洪 鍾 仁

記者가 三南을巡廻하든 六月中旬으로부터 下旬은農村間題가 農村과 또는都市에서微妙하게表現되든때이엇나, 바로農村에서는 麥秋이요, 또移秧期라 가장방분時期이엇고 한편으로는 米의品貴로 米價는日加昂騰하야 都市와農村의消費者는 飯米의饑饉에 빠젓스니 貯藏米의解除를 急速히하라는소래가놉흔데 一方에는春繭價가暴落하야 生產費는커녕뽕갑도안된다고 蠶業家의 우는소래가 到處에彌滿하엿든때이엇다.

그동안에 《飯米飢饉緩和》의對策으로 所謂輿論에 좃차서 貯藏米는 一部解除를보앗다、

그러나米價는 消費者의 企待와가티 低落되지안코 依然히時勢는 强勢를 보이고잇다、事實에잇서서 今番의貯藏米解除가 飯米饑饉과또相距가잇다는것으로도 볼수잇는것이다 이에對하야 一日發東京電報는貯藏米의解除를하여도 米不足보다 米價高때문에 小農階級의飯米饑饉을 完全히解消될수업스리라는 農林省當局의觀測을報道하엿나 이通信內容에는 論理의矛盾이업지안호나 何如間日本內地農村의 窮狀을말한것인데 이것은거긔農村에만適用되는것이안이라 記者가본三南의農村에서 더욱그러함을보앗나。

即 秋收하는 그 마당에서 거이全收穫物을 放賣하지안을수업섯든農民、(自作、小作等)은飯米를다시 買入치안을수업는苦境에 서게됨으로 다시生產者의處地를 버리고消費者의立場에서 米價低를企待케될것은當然의現勢이나 그러나秋期에全收穫物을 팔지안흘수업섯든그들中에서이때에 다시飯米를買入할 金錢의餘裕를가진者果然몃名잇슬까? 甚한데는草根木皮로 延命을하면서 달은便으로는若干의 副業과日傭勞働、僅少한 報酬로食糧을購入케된다고는하나 어듸 무슨八字좃타고낫다고 糊口의材料를要求할수잇슬까到底히 不可及의일이다

여기에서 米價高로喊價低도實質에잇서서는 痛痒을늣기지 안는小農階級의 許多한存在를 보앗다

이들은麥嶺(보리고개)를넘어

英米豫備會議折衝

極秘密裡에繼續

이미專門家의손에서떠나서

政治的으로解決努力

【倫敦二十九日發聯合】 英米兩國間의海軍豫備會商은 去六月二十七日의會議로서 一段落을告할것으로보던바 그後折衝은極秘裡에英米兩國代表間에續行되야 海軍比率의大綱으로부터進하야 政治的解決案에至하기까지相當히 英蘭的協議가繼續되는模樣이다 도米英兩國間의豫備會商은 英國專門家의巡洋艦七十隻建造案으로 暗礁에올려노앗는데 그後의協議는專門家의손을떠나 英國政府로부터는 볼드윈樞相及外相사이먼氏가出馬하고 米國代表데비스氏가主役이되야 大局으로英米專門家會議에서의對立을 政治家的으로處理하도록 努力할것으로觀測되다 米國代表部에서는 豫備折衝의現狀에關하야 二日左와如한意見을漏洩하엿나 英國, 米國兩國 代表間의折衝은인제 專門家의손에서떠낫다 目下海軍力의 一般的印想特히 그政治的意義에對하야討議도 進行하고잇다더욱이英米兩國代表는 非公式으로도 折衝을繼續하고 잇스나 次回 本會議의日程도 아즉決定하지안엇스나 佛國兩代表가 倫敦에오기以前에 一回本會議가열릴것으로본다

準備專門委員會

質問書에對해協議

【電通 바타비아三日發】 日蘭會商의準備專門委員會는 三日午前十時부터 第二回의會議를開催하고 去二十九日에서로交換한質問書에對하야 各其準備한調查資料를提示하야 調査研究方法과其他에對하야 相互생각난點을指摘하고 長期에亘하야討議를避할方針下에 協議를거듭하엿다

惡影響除去코저

英米兩巨頭會談

英勞働黨機關紙報導

【倫敦二日發聯合】 맥도날드首相은 近近今泉同伴카나다에靜養旅行을하기로되엿는데 勞働黨機關紙데일리 헤랄드紙는 二日紙上에맥首相은 米國에서 루一스벨트大統領과會見할것으로본다는 報道를揭載하야 異常한注目을끌고잇다 同紙의傳하는바에依하면 맥도날드 루一스벨트兩巨頭의 會見은 英、米兩國間에感情은 顯著히疏隔하여진 事實에鑑하야 맥도날드首相은 어데까지든지兩國의惡影響을除去할必要가 잇다고하야 루一스벨트大統領과의懇談을열고友好的親善을圖할意向이라한다

蘭印側質問에

日本代表回答

【바타비아三日發】 專門委員 會는 三日午前十時 中央美術協會에서開催하엿는데 蘭印代表가提出한 質問事項中關貪完了된것에對하야 日本代表로부터回答을與하고 特히左의諸項에對하야 說明하얏다

一、日本政府의輸出入統計算出方法
一、中繼貿易의現狀
一、保稅輸出品의取扱方法
一、輸出組合의組織運用

『룻세』氏

突擊隊司令就任

【電通伯林一日發】 룻氏의後任으로 룻세氏가새로나치스突擊隊司令에 就任되엿는데 同氏는 突擊隊를再建하야 純全한政

飛行場設置

香港新嘉坡에

【電通倫敦一日發】 一日附선데이크로니클紙上에, 同紙의政治記者는 英國政府의大軍擴政策에對하야左와如히述하엿다 政府는國際情勢에鑑하야 大戰前에『世界第一의海軍國』政策을決定하엿다 右는巡洋艦三十隻, 驅逐艦十二隻驅逐艦、航空母艦數隻는 一億磅의豫算으로써 五個年間에建造하려는것으로 政府는其外에陸軍機械化, 植民地軍隊及空軍豫備의增大, 戰鬪機六百臺의增加에伴하야印度, 아덴, 香港, 新嘉坡에 飛行場을 設置할件도決定하엿다

第二革命에

兩殿下無關係

獨逸政府發表

【伯林二日發聯合】 第二革命陰謀事件에關하야 流言蜚語가盛行하는바 特히前皇儲빌헬름殿下와第二皇子아우그스트・빌헬름殿下의策動이라고 傳하는바 兩殿下가모도射殺되엿다든流布되여잇는대 獨逸政府當局은二日右風說을否認하고 左와如히 布告하엿다

前皇儲빌헬름殿下와 아우그스트・빌헬름殿下가 今回의陰

파펜氏釋放이나

左遷은難免

後任은필링氏?

【伯林二日發聯合】 나치스清黨運動이突發한 副總理파펜氏는二日에至하야 겨우釋放되야午後二時필링航空相과 一時間餘에亘하야 會談을遂하엿다右會談에잇서서 파펜副總理는필링航空相에 革命陰謀事件에는全然無關係함을 陳辯하고自身의潔白을强調하야 필링航空相도諒解하는듯하나 會談後兩氏가억게를가지하고 伯林街上을거르며雜談을交換하엿다 그結果파펜副總理는依然히를리內閣에留任할것으로보는데 副總理의地位는悲慘히링氏에게讓하고다른椅子를갓게되엿다

謀事件에關係하엿다는風說이잇슴으로 필링航空相은一旦兩殿下를몸소訊問하고 今回의事件과의關係에對하야 質問하엿는대 右訊問에兩殿下가모도事件과 全然關係가업다는것을言明하엿다

슈將軍射殺로

슈트라하氏自殺

【電通伯林二日發】 確聞한바에依하건 元히틀러首相의腹臣이든 그레골・슈트라하氏는前獨逸首相슈라이헬將軍이 나치스清黨運動으로因하야 射殺되엿다는報를接하고自殺하엿나 슈트하氏는 一九三二年十二月當時슐라이헬內閣을 나치스黨으로서 支持하는論을主張하야 히틀러首相과意見이 合致치못하야 드듸여脫退한後從前대로化學工業에 再次드러가大伯林콘체른의 支配人의地位에잇든人物이다

西園寺公

四日夕退東豫定

【電通東京電話】 西園寺公은四日午前九時四十分來東키로되여잇거니와 西園寺公으로裝置當局에向하야 同日午後四時二十五分發同七時十八分御殿場驛着第三九列車로退京하게 되엿合으로 準備를依賴한다는付托

二十名에다시死刑

反逆者等 續續死刑執行

清黨運動着着進行

【電通伯林二日發】 獨逸政府는今回의清黨事件에서 二日午後十一時半까지에 二十名이死刑執行되고 今後死刑에處할사람이잇스리라고公表하얏다 또 三日午後도 閣議가열릴터인데 閣議後그동안死刑이 執行된者及逮捕되야 軍法會議에廻附된 사람의姓名이發表되리라고 豫想된다 어잇서다 此等情報로보아 新聞紙察하건대 西園寺公의來東은即日豫定로될것으로보며 政局收拾은意外에速히될듯하다

專賣收入決算

黑字現出好調

昭和八年度 專賣收入決算은總收入四千四百萬圓、總支出二千三百萬圓、差益二千百萬圓으로豫算面에比하야 三百六十萬圓의增收를보이는바 鐵道收入과가티 黑字好調를자랑하고잇다 煙草賣上만을보면 豫算面에比하야 三百七十萬圓의增收이엇스나 南中에잇서 紅蔘의賣行不振과 外鹽高가影響하야煙草收入을侵蝕하게되엿다

辭令

總督府稅務署長 金 榮 一
任總督府司稅官(七等) 多田 仁 巳
補新義州稅務署長 坂本 晃
任總督府司稅官(七等)
補海州稅務署長
拓務局
總督府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
補沙里院公立高等女學校長
敍高等官(五等) 三階堂春夫
朝鮮公立高普敎諭
(海州)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
補沙里院公立高等女學校敎諭
(沙里院)
依願免本官 下川作次郎
朝鮮公立高女校長兼敎諭
依願免本官兼官 松野 二平
總督府技師

後繼內閣의物望

後繼內閣의組織은

政民聯立이妥當

政友會의觀測

【東京電話聯合】 齋藤內閣總辭職決行에對하야 政友會에서는 左와如히觀測하고잇다 齋藤內閣의 挂冠은時期는失한듯하나 只今에에對하야何等말할바못된다 次期後繼內閣은政民兩派立閣이 此際가장妥當하다는 確信을더욱强하게함에至하얏다 또今回의勳選議員은若干適任者업는바 아니나 大體齋藤首相의 私選이라고볼사람이만흔것은 遺憾이다

力과德으로나갈

強力內閣必要

有賀殖銀頭取談

齋藤內閣總辭職決定에對하야 新勅選有賀殖銀頭取는 語하되 後繼內閣의豫想이 이번처럼 困難한일은 이제까지업섯다 다만 우리로서 바라는바는 力과德을兼備한 強力內閣이 出現하야 非常時局을突破하게될것이다

國民意氣背景한

強力內閣希望

加藤鮮銀總裁談

內閣總辭職決定에對하야 加藤鮮銀總裁는如左히말한다 內外不安의政局에處한齋藤內閣 도 一般國民의意氣를背景으로 한 強力內閣이 出現하야 現下 의 難局을 打開 하야 주기를 希望 한다

宇垣內閣說은

解消된지已久

官邸서宇垣總督談

齋藤內閣總辭職當日一有力한待賓組로 指目되든 宇垣總督은일죽부터 仕退하야政變은 我不關이라는態度로 乘馬하러 나아가는것을 午後一時官邸로 訪問에서보든 記者에게 말하기를 齋藤內閣도 總辭職하기로 決定하엿다고 거까지 안가게 될것이라고 諸에게말한 나의判斷은 잘못되엿다 後繼內閣? 全然알수업다 新聞에傳하는것도 大命再降下說山本內閣 一木 平沼 岡田 그리고이宇垣等人物이列擧되는 모양이다그러나나의일흠은벌서昔日에解消되엿슬터인데新聞이記事補充에使用하는모양이다外에는 情報가오면안될

後繼內閣은

自己는不知

近衛公來廿八日歸國

【그리갓치트대커웟二日發聯合】 루一즈벨트大統領과 會見한以來米國各地를巡遊中인 近衛文麿公은故國의政局에關聯하야 二日秘書를通하야左와如히말하엿다 齋藤首相이辭職할境遇에는後繼內閣의首班이된다는 風說이잇는模樣이나 이러한風說은何等根據가업다 그리고余가後繼內閣을組織한다는것은 不可能한일이다 近衛公은近日米國으로부터카나다에이르러 七月十八日郵船龍田丸으로 샌프란시스코를出帆하야 一路歸國할豫定이다

編隊飛行에呼應

米潛水艦도알라스카에

注目에値할新訓練

【산체코二日發聯合】 米國政府는 陸軍爆擊隊航空隊가 알라스카訪問編隊飛行을 呼應하야 알라스카近海의潛水艦航行計劃을 發表하는等 北太平洋上의 警備에저지안은關心을보이고잇는此際산체코海軍根據地第十二潛水隊所屬의二隻은 二日알라스카로向하야 出發하엿는데同隊所屬인他의七隻도 三日에出發하기로되엿다

米大統領

아나폴리스出發

【米國巡洋艦 휴스톤號로부터 의無電 特派員二日發】 夏期休暇를利用하야太平洋經由하와이訪問一万三百浬의 洋上旅行에 오를 루一즈벨트大統領은侍從武

首相、藏相의

辭職理由明記

【東京電話聯合】 齋藤內閣은 三日總辭職을決定하게되엿는데 其辭職理由로 別記하엿고 齋藤首相과高橋藏相이辭任의 理由를明記하엿다 다른閣僚는 齋藤首相이 辭表를提出하는 故로 辭職한다는것이 其理由이다

▲齋藤首相辭任理由 今回의事件을惹起하야 世間을騷然케하야 御宸襟을惱케한 것은實로恐懼不已하는바이다 따라辭表를陛下에捧呈한다

▲高橋藏相의辭職理由 自己의直接監督下에잇는官吏中에서今回와如한大事件을惹起한것은監督이不徹底하엿든것임으로 이에서더큰不德이업는바實도恐懼不堪이다 따라辭表를陛下에捧呈한다

鈴木政友會總裁

政策調查報告聽取

總辭職의今日午後

【東京電話聯合】 政友會에서는 三日午後一時부터 鈴木總裁私邸에政務調查正副會長, 各部長及各特別委員長幹事의政策報告會를開하고 鈴木總裁左와如한인사를述한다음 各部長及委員長으로부터 各其所管政策에對하야 中間報告를行하고: 여러가지로意見을交換하고午後四時散會하엿다 鈴木總裁의인사는

何時에나同一한것이나 特히現狀은가장眞摯性을要하는時期이다 政黨은國民을背景으로하고서는것임으로 모든方面에國民의意思가反映치안으면안된다 政策에잇서서도그러코 行動에잇서서도그러타 그리고 其反映은在野黨임을不問하고 在朝黨에遺憾이업서야한다고信한다 政策은 外交國防產業經濟等各方面의條件을熱心研究하는바이나當面한內政問題도서米穀蠶絲等農村對策의大部分은 調査도進捗되고잇다한다 一日이라도速히此를完成하야臨時議會를召集하야 國民의期待에副케할것이다 그리고思想、敎育의刷新對策에對하여는 이미試案을提示하고여러가지로審議하고잇는模樣이다

그리고 行政機構의對策에對하여는널니人材를 天下에求할必要가잇다 이機會에 無

多年大阪市長으로 地方行政에貢獻하기때문으로 佐藤海軍中將은 精神家로 思想界에對한 功勞에依한것이다 그리고宮尾氏는 帝都復興事業의功勞者로 其後復興局長官이든堀切書記官長이 推薦한人物이다

鈴木侍從長及湯淺宮相과會見하고重要協議를遂하엿다 그리고木戶內大臣秘書官長을招致하고 여러가지로協議하엿다

牧野內府等

重要協議

【東京電話聯合】 齋藤內閣總辭職으로 牧野內府는天皇陛下의御命召에依하야 拜謁하고御下問에奉答한後 御前을退下한後

任所大臣制又는 國策審議機關의制定과 如한制度政策을採用할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 그리고此等政策과갓치政黨을背景으로 私利私慾을追求하는者 地方自治體로서 黨利에黨略을使用하야 政治의公明을障礙한者等에 對하여는斷然此를不許하고 嚴重한取締를維持치안으면안된다

保安隊를全滅코

突然九江에出現

江西共產軍勢力猛烈

【上海發】 江西省東北部에잇든 共產軍은 二三日前九江下流 百五十里를隔한 彭澤地方에進出하야 都昌縣의保安隊五百名을全滅식히고 獨立三十六旅에對하여도 大損害를與하엿는데 南昌行營에서는保安隊長 廬士翹를江西安徽掃匪總司令에任命하고 彭澤, 東流, 秋浦方面의討共에當케하기로 되엇다一方共軍의別動隊四五千은 陽新方面으로부터瑞昌(九江西方六十里)을包圍하고折編第四旅에 大損害를 與하야形勢樂觀을不許함으로 九江으로부터三十六旅와保安隊를 急遽應援에出動식혓다 地勢其他의關係上 九江은目下安全하나 萬一을慮하고日本驅逐艦『粟』은漢口로부터大冶에到着하야 警備에當하고잇다

治的團體로만드는것이 就任의第一任務이다라고말하야 從來非難의的이되여잇든 突擊隊의軍隊化를斷然排擊할意向을表明하엿다

夕刊後의市況 三日
大阪短期 新 ...
橫濱生糸後引

그들이본半世紀朝鮮

장옷……트레머리……몽당치마……단발 (二)

눈부시게 변한 조선의 녀성들

在留三十七年 빼쓰트 孃 (六七)

가는일천팔백구십칠년조(一千八百九十七年組) 중에서도 빌점홍인『마-가렛빼 스트』양이 조선에건너온것도 그러니까 바로삼십칠년전 녜일이다 화려한『아메리카』황금의『아메리카』신대륙의 청춘도잘잇거라

사진은 빼스트 양

하고 산설고 물설은 처녀가 아름다운어린시절의꿈과 희망이 잠겨잇는『켄사쓰』의고향을등지고 멀리 장경성(長庚星)빗나는 쪽 서 수평선을 너머서 무궁화욱어진 이국을 차저온때는 이땅의부인들은 치마나장옷속에 얼골을 기피감추고 그좁은 시야(視野)를 통하야 겨우세상을바라보고 잇섯슬때이니 낫선 서양사람의 말에 귀를기우릴리는 천만에업섯다한다

◇……◇

그래서 어느시골로 전도를나가면 마을부인들은 이상한구경거리나 온것처럼 몰려드러서는것도 마음노코구경을못하고 『빼스트』양이드러잇는집울타리바게 매달려서 울타리틈으로 엿보고는 사나히자 여자인지 구별을못하여서 수군거리는것을 몃번인가 보앗다고한다 그래서 너무나구경군이 몰려들므로 아른날새벽에는 그만자리거로 그마을에서도망을쳣다고한다 겨우 삼십명의 여자교인을모아노코『예수께서는……』을시작한것이 바로어적게가튼데 벌서 반세기――그동안에 그가 사는 평양(平壤)서만도 수만명의 여교인을획득햇다고 하면서 자못자랑삼아 이야기한다

◇……◇

더욱이 괴자가양을차저간 어멈은 바로그날아츰에그의엄마에 이러낫(母校)인『파-크』대학으로부터 그에게명예법학박사(名譽法學博士)의학위를 수여한다는반가운소식이일주하얏이첫음으로올때에 타고오든『똑다』기선으로온것이아니라수천마일의태평양거츤물결을삽시간에무선(無線)을 타고날러왓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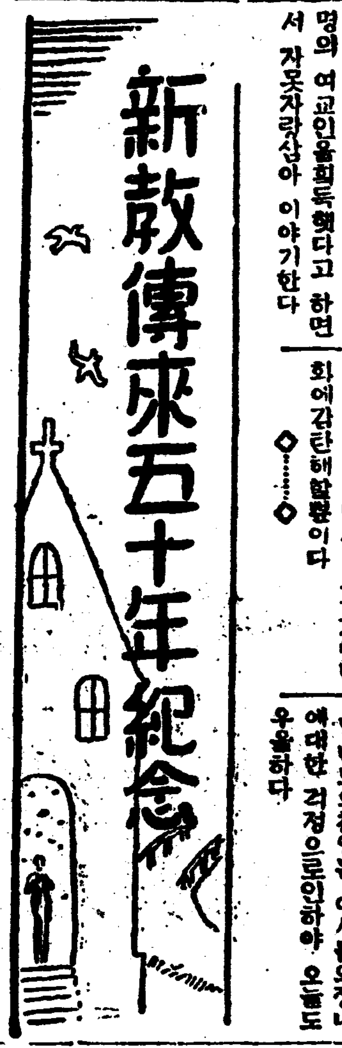
◇……◇

박사제일일을마즌여밧사『빼스트양은』그러나 결코까다로운 민법학은헌법제멋조에 대하야 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 거진반세기를 지낫건만 아직도어수선한 영어식조선말로써 삼십칠년동안의이땅부녀의큰변천에 감탄해할뿐이다

양은 자글은 평양여자고등성경학원 원장의 요작에 잇스면서 아직도 삼십칠년전에 그 외친구가 보내준 기름에저른 머리빗을 쓰고엿건만 그동안에 이땅의부녀들은 장옷에서트레머리에 트레머리에서 단발에 몽당치마에서 『모-드』로 눈부시게 변하엿다 고한다 과연그들의 머리에서도 세기(世紀)의 오네인풍을 완전히 씨처버렷는가?

오직종방례의의 노예에서 다시허영의노예로 옴마갓슬뿐이 나아닐까?

늙은 법학박사할머니의 제일 일은 역시 이제이고향인아름다운 반도의젊은 여성들의장래에대한 걱정으로인하야 온통도 우울하다



夏期歸鄕學生의 行動監視를 嚴達

思想人物과 聯絡을 一層注意

學務警務兩當局서

중등학교이상 대학 전문학교의 하기방학은 칠월이십일까지 에는 일제히시작되야 경향각지는 물론 멀리현해탄(玄海灘)을 건너가서 공부하든 학생들도일이삭동안의휴가를 리용하야 농촌으로 도라가게되나 이와동시에 학무국과 경무국에서는 그들학생들이 휴가에 고향에 도라가서 어떠한행동을 하는가를히 좌의적색채를 띄인학생의행동에 대하야는 벌서부터 경무당국의 날카로운 감시의눈이 번쩍이고잇다

그리하야 금년에는 특히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무당국에서는 귀향하는학생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농촌진흥운동과 문맹퇴치운동등에 참가식히려고 알선하는동시에 경무당국에서는 일본내지로부터 귀향하는학생의 가지고 건너오는 서적기타문서와 그들의동정에대하야자세한감시를하며 조선내의 각학교요주의학생의행동에대하야도엄중한감시를 하기로하고 각도에대하야 자세한지시를 발령하는 동시에 각지의적색운동의동향(動向)에 대한엄중한조사를하야귀향하는 학생과의련락등에대하야엄중한 취체를하게되엇다한다

農地令의 逆用과 脫法行爲監視

來十一月一日實施日압두고 各道小作官會議開催

농지령실시를 압두고 이에대한 준비적협의를할제이회 각도소작관회의는 하금 총독부에서 개최하고잇는데 이번회의의 중심의제는 농지령실시에관한 취체방침과기술적문제에대한것으로 소작관에게 농지령의해설을 하야 농지령에대한지식을 가르치고 또농지령실시와동시에 지주가 법령을역용(逆用)하야 소작인을 압박하거나 또는교묘히 탈법적행위를할것이예상됨으로 이에대한감시와취체방침등을지시한다고한다 이와동시에 특히 주목되는것은 농지령에의하야 지주와소작인관계를 조성하며 또는취체함에는 다만 소작관과 소작위원회의 힘만가지고는 강제력이업서 지주와소작인관계의 사건에 의하야 주기가 어려움으로 소작관은 항상경찰관리와 협력하야 악사음과 악덕지주의단속을 하랴는것도 이회의에서지시하엿다한다

이외에 농지령은 십일월일일부터 실시할예정임으로 이법령의시행규측제정에관한 각도소작관의 의향도 청취하리라한다

全貫떼먹고 橫領罪로被捉

抵當안흔것을奇貨로

이일오후 세시경 부내본정서동사헌정(東四軒町)파출소 김판흥(金判興)순사가 장충단(奬忠壇)원을순시하던중 그곳에오지 말다톰을 하고잇는 어떤남녀를 발견하고 취조한결과그들은 부내창신동(昌信洞)오백팔십일번지 김광우(金光宇)(四五)와 인사동(仁寺洞)일백팔십삼번지 권봉자(權鳳子)(三五)로 김광우는 소화륙년 일월경 봉익동(鳳翼洞)칠십어번지잇는 그의집건넌방을 권세이백원에 권과권봉자에게 빌여주고 그는다시종로금융조합(鍾路金組)에서 그집을저당하고 일천륙백원을 빌여쓴후 갑지를안하야 소화칠년십이월에 금융조합의 손으로그집을 강제로 봉쇄당하게되야 권봉자는 김광우에게 권세돈이백원을 요구하엿스나 그는저당되지안헛슴을 긔회로 폭행만하고 돈도내지안하고 어데로도망하야 형적을 감추엇섯는데 이날우연히 두사람이전긔공원에서만나게되야 돈을내라거니 못내겟다거니 언쟁을하든것이라한다 전긔김순사는 그를본서에인치하야 그서에서는 횡령죄로 그를엄중취조중 이라한다

文川土地詐欺事件 四年만에 控訴結審

仁川殖産會社相對의大訴訟

注目되는覆審判決

함남문천(文川)지방일대의삼백수십명의 농민들과 인천(仁川)유령회사초선산업주식회사(產業株式會社) 사이의토지등기말소청구소송은 오랫동안 경성복심법원에서 심리중이든바 삼일에드디어 결심되엇다 이사건은 원래 산업회사에서 다수의농민들에게 돈을융통해준다하고 백지위임을 바터가지고 마음대로토지를취부 잡혀먹은 사실로피해자 농민들이 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이르켜서 경성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하엿든것인데 산업회사측에서 불복하고 공소하엿든것이다 소송을 이르킨뒤로 작으만치 사년의 세월을허비한것이다

불측한店員

부내황금정(黃金町)오정목 칠십칠번지 천일각(泉一角)의집 고용인 전도일평(田島一平)은 이일오후와 상갑 이백륙십칠원며를 가지고 어테로도망하엿다하야 그의주인이 수색원을 제출하엿슴으로 시내각서는 그의행방을엄탐중인데 그는 만주국도문(圖們)으로다러난형적이 잇는듯하다고한다

不幸한少女 賢淑에게이同情

恭靑學校生이

사변전에 집을떠나간 아버지를그리워 함경북도 청진(淸津)에서경상남도부산(釜山)까지수륙이천리를 차저가서 사방으로조사해보앗스나 그리든 아버지는차질것업고 다만 룸업고산설은 타향에서로자도업시 방황한다는 최현숙(崔賢淑)(一四) 소녀에대한 본보긔사를읽고 부내중앙긔독교청년회학교(中央基督敎青年會學校) 고등과(高等科)학생일동은그들의가벼운주머니를 털어모흔돈일원일전을 가엽슨그소녀에게 전하여 달라고삼일오후본사로가지고왓섯다

病少年悲觀自殺

이일오후세시경 룡산경정(京町)횡단선로에 인천(仁川)행 긔차가진행중어떤 청년하나이 뚝으로부터 뛰여내려 자살하엿는데 검시한결과 그는 부내 강긔정(岡崎町) 십사번지 천분조일랑(川分助一郞)(六)인것이 판명되엿다 그는 오래도록중이염(中耳炎)에 걸이여 치료하엿스나 종시 낫지안음을비관하고자살한것이라한다

金融組合預金은 五年時效뿐일가?

三千九百圓請求敗訴코控訴

注目되는覆審歸結

금융조합에 맛긴돈도 오년동안 청구하지안코 그냥두어두면 영영 떼여버리게되나 충북청주군사주면 산북리(淸州郡四州面山北里)김사억(金思億)은 청주금융조합을 상대로 지난삼월이십칠일에 공주(公州)지방법원에 예금삼천구백원의청구소송을이르켯는바패소하고다시공소하야오는륙일에경성복심법원에서공판이잇기로 되엿는데 이사건의 판결결과는전조선다수의금융조합원중에게 중대한영향을 주게되엇다 원고의주장한바를보건대그는청주금융조합원으로 대정십사년오월일일에 그금융조합에 돈사천원을 예금하고 그달륙일에 오백원을 차저내갓더니 뜻밧게도 그의사용인 안윤덕(安潤德)이가 자기의 인장을 도용하야돈 삼천구백원을 차저갓슴을 발견하엿다 그런데 그때에 금융조합사기는 그돈은금융조합으로서는 정당히 내어준것이라하고 그예금통장에 삼천구백원을 내어준양으로 가재해버렷다 그래서원고는 예금통장을 가지고오지안는 사람에게는 비록령수증을가지고왓다하드라도 돈을내어주지말라는 금융조합시행령규측이 잇슴에도 불고하고 돈을내어준것은 금융조합의과실이라하고 그돈을 달라하고 돈을내어준것은 소송을 제기하엿든바피고 금융조합측에서는그때그돈을차저간 안윤덕은 원고의사용인으로 그전에도금융조합거래에원고의대리로두차 금전거래를한일이 잇슴으로 여전히권한이 잇는줄알고준것이라고 주장하엿고 재판소에서는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이채권은 상취인(商取引)채권으로인정하고 금융조합령(金融組合令)이나상법(商法)에 비최여 오년동안 청구하지안는때는 그채권은 시효(時効)로소멸된다는해석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판결을 해버렷든것이다 복심판결은 매우주목된다

蠶種國營具體化

一般蠶種業者는委托販賣者로

明年度부터는實施

총독부에서는 명년도부터 잠종국영(蠶種國營)을실시하기로 되어방금농림국(農林局)에서구체안을연구중인데근간에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을 요구하기로되엇다한다 현재조선안에잇는 잠종제조와배급은 잠종을 총독부에서 제조하야 그것을각도의원잠종(原蠶種)을 맨드러 각도에서는다시그것을 잠종제조가에게 배급하야 보통잠종을맨드러 일반양잠가에판매하고잇는데잠종업의 발전상 자미가 업슴으로원잠종으로부터 보통잠종의 제조를관부국영으로하야 그제조 판매를 국가관리로써 통제코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실현되면 각도의 원잠종제조소및잠업취체소는 국영으로 이관하고또 잠종제조가는 위탁제도(委托制度)로써 원잠종판매를 하게하기로 할터인데 실시에드는경비는 약삼백만원을 요함으로재무국의 사정(査定)통과에 좀어려운점이 잇슬듯도하다

이경비는 원잠종 판매수입으로 삼년째에는 전부회수되고그뒤로는 년년순이익을 보게되리라한다

그리고 잠종국영의 유리한조건을들면 다음과 갓다

一、잠종의 실질적 통일을도모하게되는것

一、잠종의 통제와 관리상편리가잇는것

一、생산의 실질적 향상을도모하게되는것

一、잠업의안정과 우량한 고치의증수를도모하게되는것

一、산견조절 통일의 목적을 달하게되는것

一、잠종생산비의 저감을도모하게되는것

一、국영으로 말미암아 통제잇는기관과 우량한 기술의 운용으로 우량잠종 실현의 가차운길이되는것

虛榮에뜬"노라"들 虐待받는男便들

各各警察에愛妻搜査를嘆願

現代男便의苦憫相

家庭爭議異風景

◇ 꿈가튼 신혼생활의 보금자리를 떠나서결혼해소의 선언장을남편의품에던지고 집을나온어린안해가잇다――심맹의 남편은 방금경성○○국(京城○○局)에근무하는 정안선(鄭安善)(三五)(假名)이오 집을나온그 안해는 지난이십팔일까지 시내 종로이정목 모병원에 근무하든 미모의 간호부 김명순(金明順)(三〇)(假名)이다 그가체부동(體府洞)칠십삼번지 룸도새지안으리라고 남들이밋든 신혼의보금자리를 떠난것은 이십팔일오후 열한시――그날 밤서 무슨계획을 세운김명순은 그가약한달전부터 근무하든 전기종로모병원에는 사직원을제출하엿스며 밤에는 그남편과 두어마디 말다툼을 하고는 『핸드빽』하나 만들고 휘 집을나와 버렷다 사흘만인 삼십일아츰에는 자기는괴롬에처하거를청산하기위하야멀리만주로가노라는참한 편지가벳보금자리를차저왓슴으로 황망해진그남편은 곳시내각서에수사원을 제출하야 배신한 안해의 그래도긔정되는 그행방을극력찾고잇다 김명순은일즉히문산(汶山)공립보통학교를졸업한후 상경하야 의전병원에서 일년이나잇슨후에시내모병원에서 이년간근무 종로오정목모진료소에 취직하야약두달전 까지 잇섯다한다 그동안에 그가배운 것은련애순례여서이사나히해서 저사나히의 품으로 옮겨댕긴다가 작년사월에방금 모관청병원에근무하는그의아버지와그의시부모사히에혼담이성립되여혼인은햇스나그뒤에는그는남편에게 불만을가지고 외방에는 혼인을 아니하엿다고하면서 여러 옛날의 사나히들을 차저다니면서 사랑의순례를 계속하고 잇섯다는것이다 이러한 모순된생활속에고민하고잇는그는몃번인가병원에서 퍼롬토하고 죽도한일도 잇섯다고한다 그리하야 타락에서타락에로 차락의길을 더듬고 잇든 허영보파리부인은 과연 무엇으로써 그죄의과거를 청산하려고하야 집을 나온것일까?

◇

가난한사람은 안해도못 미들세상=부외리태원리(梨泰院里)삼백륙십구번지 황봉환(黃鳳煥)(假名)(三〇)은 그의안해 시내홍파동(紅把洞)륙십구번지에 사는 김순이(金順伊)(六)를 상대로 삼일오후룡산경찰서에 설유원을 제출하엿는데 듯은바에의하면 전긔황봉환은 작년십이월에 김순이와 결혼하야 약한달동안 그의처가에서 동거하여오다가 다시그의집에와서 단란한 생활을 계속하여오든바 지난 륙월십사일에 그의안해는 무단히 친정으로간후 도라오지 안코 그의남편보고는 당신의집 가튼 가난한곳은 죽어도 갈수업다고하며 종시타일러도 듯지안흠으로 약십일전에 서대문서에가서 단판하야 김순이는그의남편에게로가기로하고 헤여젓스나 그래도그는 친정에만잇고 도라오지안하니 허영에뜬어린그의 마음을 다잡러서 그에게로 다시도라와서 살게하여달라는것 이엿다 만일에안살터이면 결혼식에쓴 비용일백오십원이나마 무러내라는 것이다

洞江校築費로 二百圓喜捨

朴嘉相氏의特志

【羅州】 전남 나주군 동강면(羅州郡洞江面)내에는보통학교증축문제를 건축하야 교육계에 록지를가진 유지가 속출하는중 동면 곡천리(曲川里)박가상(朴嘉相)씨가 다시금이백원을 보교증축비로희사하여씨의칭송은물론 학교증축문제가 순조로히해결되리라한다

波蘭飛行家 大西洋橫斷

【왈소二日發聯合】 대서양(大西洋)횡단비행에 성공한 파란(波蘭)비행가『아다뷔스크』형제는이일오후 애긔의『왈소』로 최후의목적지인『왈소』에무사도착되엿다

延白警察에서 青年一名檢擧

【白川】 황해도연백군은천면(黃海道延白郡銀川面)배천주재소에서는 지난 륙월삼십일밤에 괴청년일명을 체포하엿는데 그는본적을 안악읍에두고 작년부터신천에와서 해동관이라는 요리업을하고잇는정만준(鄭萬俊)으로지난륙월십이일경에백천온천조선려관에와서투숙하고잇는것을 연백경찰서에서 인치취조중인바 원인은 비밀에부치나사실은 중대범인인듯하며 그는일즉이 만주방면에 가서나년간류랑하엿다고한다

興京縣城을 共軍又侵略

◇尖兵三十餘名이

【奉天三日發聯合】 몃번이나 위험을겪한든 흥경현성(興京縣城)에도다시이일새벽에 공산군의백명이 래습하야 첨병(尖兵)삼십명은 현성내영국인 선교사의집을 습격하엿는데 급보를바든삼포(杉浦)경비대는 곳만주국측과련락하야 이것을 격퇴하고게속경계중이다

運動競技

4—1 城大優勝 對九大三回戰

京城帝大對九州帝大의 定期野球戰第三回戰은 兩軍一勝一敗의뒤를이어 三日午後一時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한바結局四對一로 京城帝大優勝하엿다

第七回아마拳鬪 參加選手發表

第七回全朝鮮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任員과 參加選手는다음과갓다고

會長 尹致昊 副會長 申興雨 委員長 金昶濟 本部委員 李吉用 姜憲集 徐相天 田蓮[illegible] 李建春 李仁德 金應集 趙聖來 李丙三 姜正柱 洪秉德 張錫宇 審判委員 金彭秀 李惠澤 金德根 監査委員 金明德 金正學 醫務委員 尹喜植 張禮世 計時員 朴大昊 金桐德 記錄委員 李樟宰 高鳳梧 朴忠根、鄭敬模 金俊植 아나운서 延鶴年 宋正炳 進行委員 金周恒 李惠逢 韓相洙 朴容虎 接待委員 張鍾源 張錬啓 李件宰 千奎興 崔錫振 金鍾振 外數名 以上

參加選手氏名 金福得(無) 金哲周(工業) 金鳳龍(新進) 趙永俊(靑拳) 徐廷基(水原拳俱) 金鳳植(商業) 金谷夫(無) 車錫均(水原拳) 許鉉(無) 呂仁德(靑拳) 洪命善(水原拳) 朴商賢(洪城拳) 朴先來(無) 趙景錫(好謙) 金萬培(無) 金命壽(大東) 宋武鉉(올림픽) 河大羲(無) 金成吉(올림픽) 金光喜(올림픽) 劉泰燮(靑拳) 方容圭(無) 朴炳杰(올림픽) 朱連亨(靑拳) 李永基(無) 嚴昌老(靑拳) 李仁珪(商業) 金根成(無) 白樂煜 崔永秀(無) 金寅壽(無) 金明培(新進) 朴團五(工業) 張博(靑拳) 崔錫鎬(朝劇拳) 朴範植(北間島) 洪在浩(靑拳) 朴昌根(朝劇拳) 權貞璘(靑拳) 李鍾淑(同) 韓一男(無) 嚴泰鎬(寫眞業) 韓俊鎬(同) 金利信(靑拳) 金在喆(醫生) 李熙先(朝劇拳) 金榮煥(無) 金相敎(靑拳) 朴萬鉉(靑拳) 黃錫福(靑拳) 方錫鎬(商業) 姜世勳(靑拳) 十五日正午까지接受者

美와魅力의 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美와 魅力은 마음대로 바다에서 山에서 설 혹…… 볏에끄어도 발자한 自然美를 發揮하는 タンゴドーラン의 化粧을할수잇스니 여름도척기버요!

タンゴドーラン은 크리-ㅁ도白粉도必要업고겨우三十秒의瞬間化粧으로당신의美貌를훌융이빗나게합니다。

固形タンゴドーラン

純良無鉛、芳香優雅、科學的美成分을合成식히여、가루白粉과갓치헛가루가飛散히야서衣服이나鏡臺를더럽필걱정도업고、손쉽게고흔化粧이됩니다。

얼골빗에따라 터서엽부게되는 タンゴドーラン色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골하얀분에……白色

얼골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골히지못한분에는……早[illegible]色

얼골창백한분에는……爽[illegible]色

얼골붉은분에는……新鮮色

尖端的美容에는……明朗色

著名百貨店、藥局、洋品店、化粧品店에잇슴니다

日本總發賣元 株式會社[illegible]本舖 東京·大阪

公州의 電氣料金 減下運動積極化

三割以上의 減下實行委員選定

法院爭奪戰도 展開

【公州】 충남공주지방법원이 귀비보용정한 일만의 공주시민은 창왕망조하야 시민회에서도 청이귀후 생활수습을 하지못한 이제 지방법원까지 갑작히 이컨한다는것은 금으로 공주시민의 사활문제라고 지방법원이컨연괴와 주민생활보장시설을 총독부에 요구진정하기로 하얏다함은 긔보한바이니와 대컨(大田)난 이십구일의 지방법원이전을 시민대표 중도(中島)씨등은 저하로밧비 하야달나고 통법위원장에게 진정을하고 공주시민회장 삼강연보(杉岡延輔)씨와 소림(小林)공작장은 지난 이일에총독부에 진정하고저 경성을향하야 출발하얏다한다

【公州】 전과별항보도한 공주지방법원 이컨문제로 시민회대표가 지방법원이컨 연괴진정을 하올딸아 상업자단체상번회(商業會)와 상공회(商工會)에서는 총독부에 뒤니어 진정할준비를 하는일이잇다는데 그는 컨조선에 례가업다는 컨등료금문제로 상번회와 상공회대표가 컨괴회사의 컨긔료감하를 요구하얏스나회답이업슴으로상번회에서 회답의독촉을하는일방지난일일 오컨십이시경에 당지말광요리점에서 상공회총회를열고 군산컨괴회사커려을 한「키로」에사컨오리식매수하야 시민에게 커력한「키로」에이시오컨을바뎌폭리를취하는 컨괴회사의 컨괴료삼할이상감하실행위원을선정하고 또경무선편락조치원공주간자동차선도철도국측영운동실행의원을선정하엿다는데컨괴료감하문제는 점점악화하여지며 공주시민의복잡다단한문제는일층주목할만치되엿다한다

始興貯租解除

二千四百石

【始興】 시흥군(始興郡)각면의장긔저장정조총수량은일만이천여석인데 금반 그일부인이천사백석을해제하기로결정되엿다는바이망자는 칠월오일까지 군이나당해각면에신청함을요한다고한다

罷業中의 人夫 六名이 被檢

會社側의 意向을 물으려 갓다 突然咸興署員에게

【咸興】 지난이십팔일입금인상 (종래팔십컨칠십컨을 모다 일원이상으로)을요구하여 회사측의만족한대답을엇지못하고 파업중에잇든함흥신흥림업주식회사(咸興新興林業株式會社)함흥역구내현장인부오십여명은지난이일까지도하등의회답에접치못하엿슴으로 동일오컨 열시경회사측의의향을물으려고십여인이 컨괴대화정(大和町)회사에왓든바 돌연이아래의륙명이함흥경찰서원에게검속되엿다고한다

金永杓 李鍾亨 李錫祖 申昌煥 韓明國 楊明善

◇取消 昭和九年六月二十七日附本報第四千六百九十五號夕刊三面에 揭載된『六七名壯丁이突現 良家處女를劫奪』이라는題下에 揭載된記事中『컨긔장정륙칠명이차레로 도라가면서 능욕하엿다』는 것만은誤報이기 그部分만을玆의取消함

朝鮮日報社安邊支局

合同炭業罷業

要求貫徹解決

會社側賃金引上應諾

【咸興】 조선합동탄업회사인부 이십이명은 함흥역구내에서 장풍(長豊)탄광에서 채굴하는석탄을 함남선하물차에 부리워 다시본선하물차에적입(積込)하는로동에종사하는중 종래의일돈(一噸)적입(積込)에딸컨 오돈(五噸)차에서 석탄을 내리우는데십오컨 시내배달에 한섬사컨오리 한돈(열여섯섬)오십컨 먼곳배달륙십컨인것을 인상하여달나고 지난이십팔일 오후두시경에 책임자에게 대표이인을선발하여 제출하니 책임자의말이 경성본점의회답을 기다려 회답하겟다함으로 이래 회답을 기다리며 종업하고잇든중 지난일일에 아래와가치 임금인상의 승락을엇고 원만히 해결하엿다한다

			引上額
積込	一噸	九錢	一錢
卸下	五噸	二十錢	五錢
市內配達	一噸(十六叺)	五十五錢	五錢
遠方配達	一噸	六十五錢	五錢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通川支局

位置 通川郡庫底港

支局長 金仁河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末輝里販賣所

位置 內金剛末輝里

主任 李容直

謹告

順安支局

記者 李在鳳

右新任함

沙里院支局

記者 朴命植

同 李東植

同 朴根成

同 朴元綱

右新任함

群山荷役費減下로

勞銀削減을 劃策

『鮮航會』의 提示負擔額에 勞働者側憤慨不已

【群山】 군산항의 하역비(荷役賃) 경감인하의 문제는 군산다년의 현안일뿐더러 정부에서 이백팔십오만원이란 거액의돈을 드려 제일기축항을완성식힌관계상 이천륙백돈의 선박이무난히 잔교에다어 졸선사용로 삼십삼컨이들지 안케됨으로 하역비인하는 축항완성에 따르는 당연한 귀결임에도불구하고 지금것 인하하지안코며 매돈에 하주로부터는 일원십오컨 식이나바터서 실지는약오십컨가량을 지출군서 이중삭중의중간착취를 감행하든것이 요즘백일하에 폭로되야 군산의중대한문제로 되야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문제는 실로군산항의소장에관한문제로서그해결여하는군산경제계에적지안흔파란을배태하고잇든바밀경지난이십구일저녁때부터문제는볼이의암초에부닷처군산의경제계는대파란을이르키게되엿다즉륙월중해결을목표로극력 선항회안(鮮航會案)의완성에 로력하고잇든 선항회에서는 결국 지난이십구일저녁때로동자 청부업자 오명놈조십회견하고 하역비를 부득이인하하게되엿스나 로동자 측으로도 물론 임금을 감하하야겟다고하며로동자측 부담률을 표시하야 속히 회답하라고 하엿다는바로동자측에서는 이뜻하지안은현실에 비상히 분개하고잇스며 그압날은 매우 우려된다고한다

列車事故二件

【咸興】 함경선에는근일렬차사고가 빈빈하다함은 루보한바이어니와 수삼일컨에도 두건이나바생하엿다

이십팔일 오후네시사십칠분 영흥군흥인면영흥역(永興驛)을상거하기를 남으로 약일키로이삼메돌지점에서 영흥군순녕면경암리(永興郡順寧面敬岩里)김정경(金貞鐵)(二○)이란로인이횡단로를 건느다가 철각의참상을 로인하여 긔차의경적을 모돗고 드디어 북행오백의호 렬차에치여즉사하엿다고한다

이십일오후한시경 긔동차게 함흥안변구내(興南)에 들어갈여합지윤이 압산십메돌가량되는지점에서제가 선로에가로노여잇는것을 몰으고 운컨하다가 그만부듸처뒤복되엿다는데 손해는 약오백원가량이라고하다

始興

畿湖蹴球大會

▲時日 七月二十一、二十二兩日

▲場所 永登浦삿뽀로麥酒會社敷地

◇主催 永登浦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始興支局

麗水

濟州島探勝團募集

▲期日 自七月二十六日至八月一日

▲探勝地 巨文島、金寧、漢拏山、西歸浦

▲會費 金拾圓(往復船費及食代)

◇主催 朝鮮日報社麗水支局

◇後援 麗水興洋水産株式會社

己妻誘拐者의

妻에게 暴行復讐

結局告訴當코檢局行

【平壤】 마음을다주어사랑하든 처를이웃사나히한테 빼앗기고 그분푸리로 원수인그의안해에게 폭행을가하여 복수컨욕하고 필경은강간죄로 감옥행한사나히가잇다

그는 맹산군옥천면동사리(孟山郡玉泉面松寺里) 오백칠십칠번지농업왕상조(王尙初)(三二)로서사랑하든 처조선녀(趙仙女)(八)가 이웃에사는 김두병(金炳三)의꾀임에 넘어지난달초순에손을마조잡고다라나행방불명이되엿슴에그는밋칠듯이동분서주하엿스나 차처별길이업서 맛슴내 불길갓티 타올으는분을참지못하고 컨두명의처양진민(梁鎭珉)(三四)에게 복수를하려고가회만엿보고잇다가 시팔일 오컨두시경 울로자고잇는 양진민의칠방에들어가 듸로 그의수족을 묵고

『네 남편는 나의처를 다리고 다러낫다그러니너는나의처자가되여야한다』

고위협하고 강간을 하엿다는데 피해자는새마인 남편을둔것만도 원통한데 게다가몸까지더럽혓다하여 장한의 피눈물을흘리며 이십사일공치인원한을 법에의뢰하여 풀려고 맹산서에가택침입강간죄로 고소를 제긔하여 왕상조는이십구일취조를맛차고 검사국으로 송국되엿다는데 그는처임코 도처창생원까지 맛보게되엿다고한다

林巨正傳 (500)

洪碧初 作 安碩柱 畵

결의 (三의□)

농동이집에서 저녁밥을 먹은뒤에 적은두목 세사람은달은데가서 자고 두령여섯사람만 농동이집 건너방에서 자게되엿는데 방이 좁고 몰것이 심하야 마당에 나가자라고 꺽정이가 농동이를 보고 마당에 멍석을 깔어달라고 청하얏다

『몰것이 만지요』

『몰것보덤두 방이 답답하우』

『덥직한 사랑칸을 세울수잇지만 남의눈이무서워서 못세웁니다』

『이동네에 액내사람만 살지안소』

『동네사람은 다 저의심복이지요만 읍네관속이나 라동사람의눈을 긔이느라구 고생입니다』

『허미테잇든 놋박재가른데서 일하자면 얼굴아는사람에게 들킬때두 만치안켓소』

『제가 여긔놋박재와 용인메주고개 두군대루 돌아다니는데 메주고개서 일할때는 이동네사는 아이들을 쓰구 놋박재서 일할때는 메주고개미테사는 아이들을 씀니다 앗가 놋박재에서 헌저내보낸든것두 용인 아이들입니다』

『두군대를 합하면 부하가모두 얼마나되우』

『되지못한것들이 수효는 삼사십명이나되지요만 그중에 제구실할만한놈은 멧놈안됨니다』

『마당에 나가안저서 이야기합시다』

『네 잠간만 참으십시요』

농동이가 바갓머슴방에잇는 졸개두엇을 불러서 말을 닐르터니 얼마동안뒤에 마당에 꾸진이 홍홍하게되엇다 멍석을 깐우에 귀직자리를 펴놋하야 깔어노코 이슬바지로차일까지 쳐노핫다 여섯사람이 모다 건너방에서 마당으로나온뒤에 농동이가 안방에들어가서 요때기 니불때기를 한아름 안어내다노코며

『새벽녁에는 선선들 하실테니 배들만이라도 더프십시요』

하고 말하야 이사람저사람이 농동이의 후의를 시례하는중에 오주가

『우리동생 사람이 신통한걸』

하고 껄껄 우섯다 오주의 우슴이 긋난뒤에 서림이가 농동이를 보고

『메주고개가 일터라니 말슴이지만 우리가 만일 메주고개서 일을 내기되면 부하를 모하가지구 우리들도 아주섭수이겟소』

하고 묵 농동이는

『엇재 메주고개에 가서 일을내시게 되니까』

하고 되물엇다

『지금 안성옥에가친 우리동무를 서울두 압송할때 중로에서 빼아스려구하우』

『메주고개를 장대시다가 김량으두 돌아가면 엇더케하실렵니까』

『그러카에 압서가서돌을 직히지안쿠 뒤를 짤허가려구하우 혹시 메주고개서 일을내게되거든 도아달란말이요』

『엇재 파옥을하실생각을 안하십니까』

『파옥을하자면 접컨이날텐데 우리 열사람쯤 가지구 한편으루 접컨하며 한편으루 파옥하자면 우선 손이 모자라서 할수업소』

『안성관군이 한것하야 이삼백명바게 안됨니다 여러분가륜 영웅으른그까지것쯤 해내기야 여반장이 아니겟슴니까 여러분이 관군만 해내신다면 파옥하구 옥에가친사람을 빼오는건 번번치안흔 내가 담당하리다』

꺽정이가 농동이의말을 듯고 서림이터러

『이주인이 이왕 한팔 도아준다니 주인의말대루 파옥할계책을 생각해보면 조치안켓소』

하고 말하니 서림이가

『네 다시잘생각해보지요』

하고 대답하얏다

『내일 우리셋이 칠장사를가서 하룻밤자구 올테니 그동안 아주인하구 잘상의해보우』

서림이가 꺽정이의말을 대답하기컨에 농동이가

『칠장사는 왜 가시려구합니까』

하고 꺽정이에게 물엇다

『우리선생님을 보이러가우』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이 근방에서 생불스님이라구하는이가 우리선생님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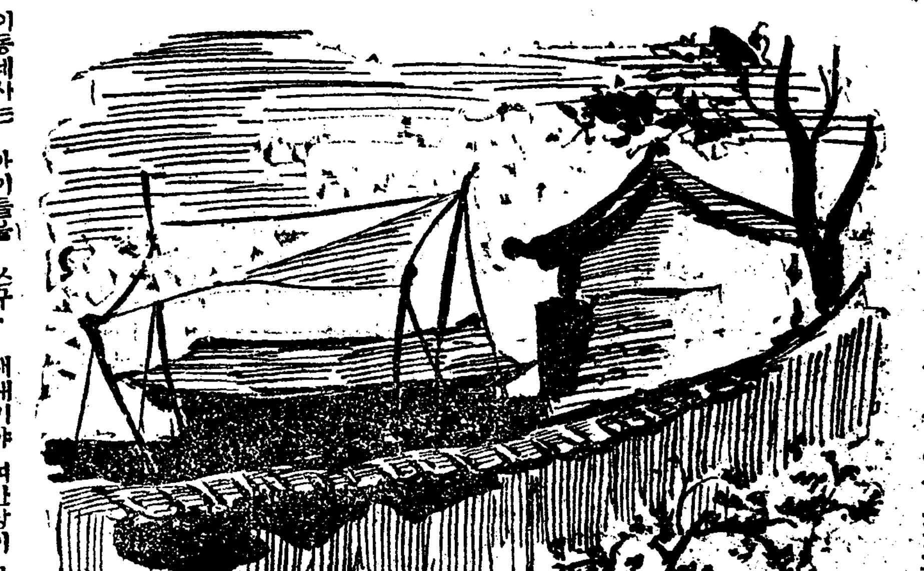
『생불스님은 그동안 돌아가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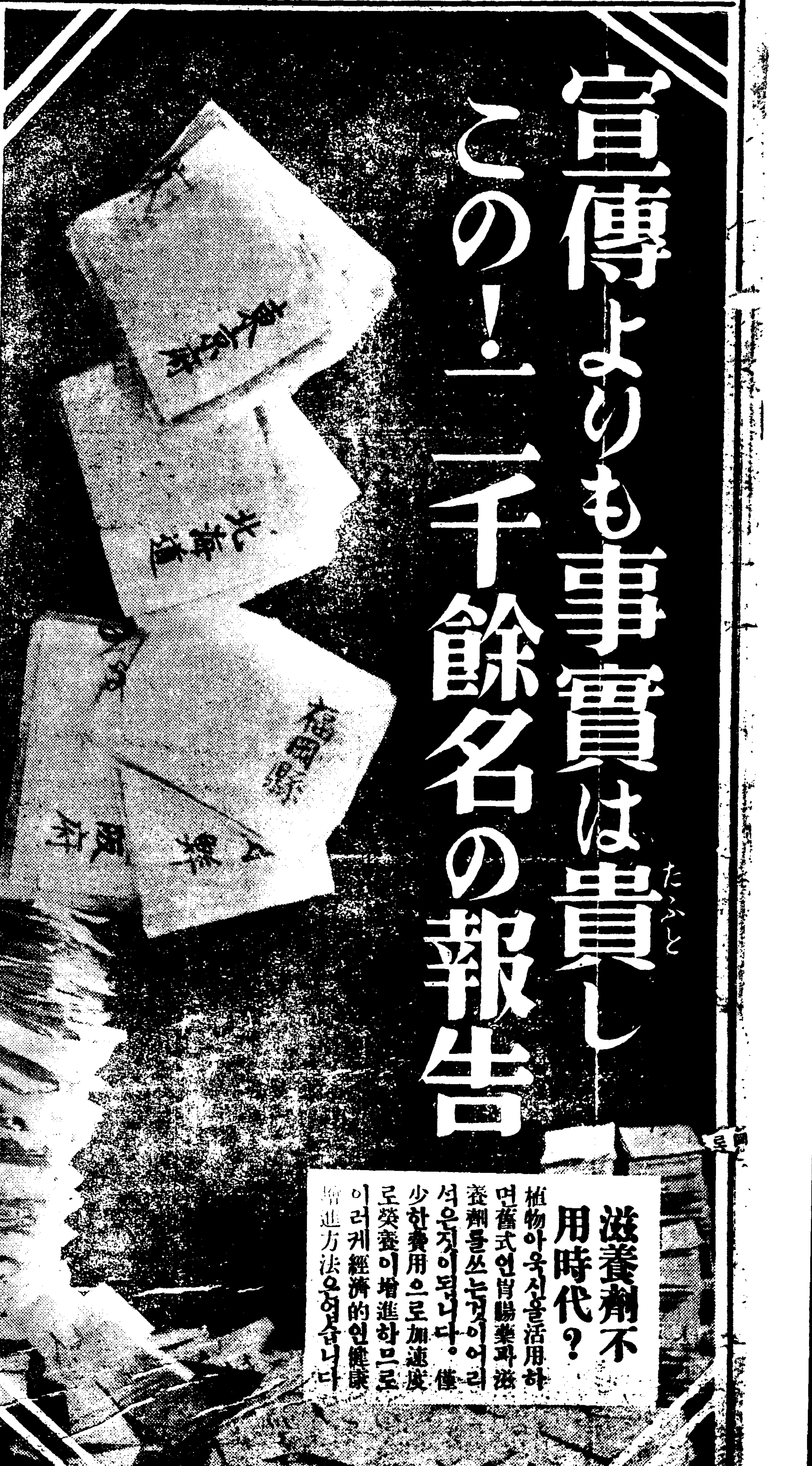
『돌아가섯서 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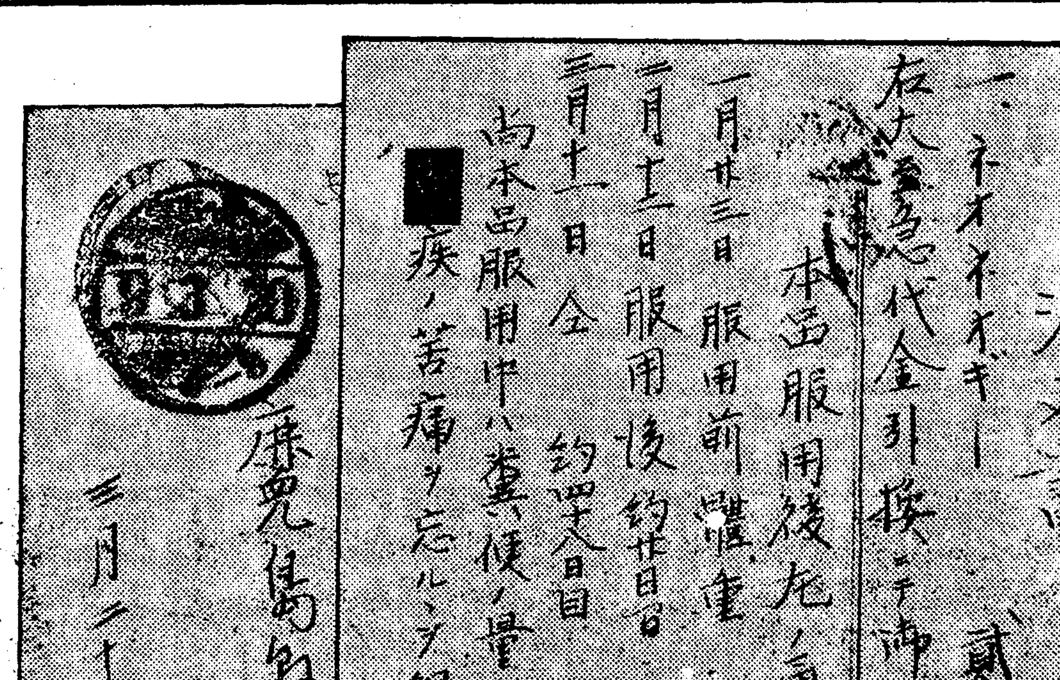
『사십구일재가 멧칠 안남엇슬걸이요 이동네서두 재구경간나무 별트는사람이 만씁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섯단다』

하되 꺽정이가 몽씩이와 유복이를 돌아볼때 세사람의눈에 다가티 눈물이 흘럿다







애드라이터ー가 붓을던지엇다

네오네오기ー라하는 藥劑는、참말珍貴한效果藥입니다。이만한物件을 世上에널리알리는것은 人道의一端이라생각하고、日本微生物研究所에서는、宣傳의 文案圖案에 經驗잇는사람을求해서、그發表를依賴하엿습니다。

햇더니、애드라이터ー『宣傳文考案者』라는이름가진사람들은、모도붓을던저버렷습니다。왜그러냐하면、네오네오기ー의 效果만은、글로는도리혀誇大하는것이라고誤解하기쉬운 結果를이룹니다。日本微生物研究所에서는、할수업서서 文章과圖案에 經驗이업는 細菌技師까지가各各苦心하야이러케發表하기에애를씀니다。

研究室의 小葛藤

本所次長、松岡氏는、帝大卒業後六年間이나大學院에대기면서아직도研究가不足하다고每日各方面의調查를繼續하고잇는篤學者인만큼、性格이、學者流의頑固一徹—筆者에、松岡氏의 擔任한 動物實驗으로、家鼠에對하야、數十匹을、嚴密한一定한 基本飼料를 주엇더니、植物아옥신을 投與한家兎는體重이約二倍量을늘어내게되엇다。訪問한 某博士말이『그러한 動物實驗의成績은類例가업다』──然한데松岡氏는『學者의말에는 거즛이업스니、疑心이잇거든貴下自身이試驗해보시라』하엿답니다。

植物아옥신의抽出에對한松岡氏의努力에는눈물겨운것이잇다。네오네오기ー의卓効──그것이植物아옥신때문임은말할것도업을것이다。

生理的으로 살올라

日本微生物研究所勤務 막테리올로ー그『細菌技師』

石井定雄

될수가 엄슴니다마는 그때문에、네오네오기ー의 作用이充分히理解되지못한다는讀者가잇으면、執筆者인나는딱합니다、그러나、上段에도쓴바와가티、動持實驗의結果多數에試驗하야、네오네오기ー의微量을먹은動物이他動物에比하야約二倍大의體重이되엿다는事實、그리고病表上의服用者가體重의增加를報告한지不過半歲인今日、二千人以上하고、그中에는、너무效果가살이오른故로어떠한作用이잇느냐는照會狀까지히엿습니다。此等報告를보면、네오네오기ー의效果는正確히이實證된것입니다。

이것이病弱者의福音이아니라면그무엇이랴！

「日本」

微生物研究所에서는、優秀한物件을幾十種이나市場에내노앗지마는그中에서、『우리들의자랑이오榮光인新發見品이잇읍니다。』ー그것이、今日紙上에揭載하는植物아옥신活用劑『네오네오기ー』입니다。이것만은、잠자코잇을수가업습니다。한사람이라도더알려들여야 할것입니다。故로、從來의廣告全廢主義를깨트리고、宣傳等에는經驗이업는나갓흔사람까지가다各其窮究를해서、어떠케發表햇으면日本微生物研究所의誠意와、이稀有한物件의存在가世人의마음속에達할가하는것을焦慮하는바이올시다。아못조록、事情을諒察해주십시오

「나는」

文章家도아니고、圖案家도아니므로이러한一枚의揭載紙의原稿를만들기는、여러분이想像하시는以上으로 힘이듬니다。아모조록보아주십시오。

日本微生物研究所는、松葉博士를所長으로推戴하고、化學部長山口博士、醫學部長三升博士其他松岡次長、나와가튼細菌의研究及製造에從事하는빡테리올로ー그의肩書를가진사람은或은醫學出身或은藥學出身으로나누엿는데、數百名의從業員과함께『眞摯하게일을하고、조금이라도優秀한物件을만들기』만이念願입니다

「빡테」

리올로ー그技師中에서도醫學出身들은、제법醫學에詳密하지마는나는、醫藥出身인故로醫藥方面과生理學方面의일은잘압니다

「東京」

附近中에계신분、또地方에계신분이라도上京하실적에는、小石川의關口大瀧의앞에事務所가잇으니찻주십시오。이곳에는每日殺到하는感謝狀이全部싸여잇은니꼭보아주십시오。

우에잇는寫眞『葉書』는文面이簡單해서읽기쉬운故로代表的으로揭載하엿읍니다。이것은九州人인데、糞便量이三分의一로減少햇다는報告는、植物아옥신때문에臨床吸收해이놉하진反應이어서、實證上에一大收穫이라고藥學部長은말合합니다。

NN7D20

市販名稱 ネオネオギー

全國藥店百貨店にあり

約一月量金一圓五十錢

意外低廉에驚愕

네오네오기ー는全國藥店에잇다、三百六十錠入金一圓五十錢으로게다가完全한防濕瓶에담엇다、바더보신분은日本微生物研究所가營利를度外視한社會奉仕의提供에感謝할것이다。

品切되藥店에서他品의勸誘를바드면大損이다、直接申込은、藥店으로注文하되代引으로新製品을急送함(送料는研究所에서負擔함)申込所는、東京市小石川區關口大瀧町二十七番地日本微生物研究所 但海外는振替東京五六八一二番으로拂込함일。

◇麟◇蹄◇地◇方◇紹◇介◇版◇

太白聖域의靈跡 嶺西絶勝의美都

面積으로는道內各郡의首位 位置는江原의中央

沿革

自然의美와靈跡의沿革을溯考하여보면 新羅景德王十六年(天平寶字二年)에豨蹄縣이라稱하고(現瑞和面伊布里) 明宗八年(治承二年)에春川(現春川)에屬하엿다가 瑞城縣(現瑞和面瑞和里)으로改稱하다가 高麗王十三年(元中五年)에 猪足縣(現麟蹄面南北里)으로改稱하고 李朝太祖四年에 麟蹄縣(現邑內)이라稱하엿는데 高皇帝甲午年(開國五百三年)에 麟蹄郡으로改稱되여 現今에至하엿스며 郡의區域은 隆熙元年까지는五個面(縣內、東、北、南、瑞和)이든것을八個面卽郡內、東、北、南、瑞和、麒麟(春川郡에서移屬)內一里內三里面(江陵郡에서移屬)으로變更되엿다가 大正三年에面을麒麟面에合하고內一里 內三里面을合하야 內面으로改稱되어六面으로되엿다

◇位置及地勢◇

本郡은太白山脈、江原道中央에位置한 景槪絶勝한美郡이다 東으로는襄陽、西으로는楊口、春川、南으로는平昌、洪川、北으로는淮陽、高城等各郡에連接되여 戶數一萬二千餘戶、人口六萬八千餘人이며 東西十三里、南北三十二里、面積百三十九方里에達하야 本道面積의約八分、道內第一位를占領하고잇스며 山岳岡巒이重疊하야 平坦地가적으며 金剛山의山脈이 本郡의北西에橫在하야 間西峯、大巖、雪岳의三大山을일우엇스며 麟蹄江은瑞和、北、內三面에서發源하야 郡의中央地인麟蹄面合江里에서合하야 北漢江의上流가되여 水路의便을圖謀하고잇다

耕地는 郡內의面積에比하야 稀少하나 地味가肥沃하며 鬱蒼한樹林이낫이라도 鬼火를보일듯하야 全朝鮮有數의木材를産出할뿐만안이라 靈區名勝으로의觀參을밧고잇다 本麟蹄는 太白山脈의一花點이며 雪岳山中에一樂天地이며 딸아서朝鮮에「모나코」일것이다

이奇勝山中에 자리를잡은麟蹄는 歷史上으로나 山水로보아 우리全國에잇서서 次席을서러할 深山僻郡이다

郡에잇서서 特殊한것은 大槪地主가 地方民이되어 一般小作人들이 多大한惠澤을바듬뿐만이라 地方經濟上으로도 外地에輸出이적음으로 만흔도움을밧고잇다 一年生産高를列記하면左와如하다

粳米	二三、四七六石
糯米	九九七
燕麥	二、〇六五
大豆	二〇、〇七二
小豆	六、四三六
粟	三〇、一三八
大麥	一、六一二
棉花	五五、三八九斤
大麻	六二、二八八貫
小麥	六〇八石
蜀黍	一、五六八
玉蜀黍	八、九五五
黍	一一二
稗	九三
蕎	三一七、五三

名産物(蜜蜂)

우리朝鮮은 海陸山野를勿論하고天然的으로 或은人工的으로 生産되는名産物이업는地方이업다 그것이 멀서일홈난것도 잇거니와 아즉과무처여 이름나지못한것이만타 우리는朝鮮에잇는名産物을 널니世上에알니워 國物愛用의奬勵를할뿐만아니라 無窮無盡의朝鮮寶物에 光明燈을가되게할것이다이제 우리麟蹄蜂蜜은이미 名聲이난지오래나交通上不便으로 多量으로外池 輸出을하지못하고잇스나 實로麟蹄蜂蜜은 그成績이良好하야 全國的으로唯一無二의 朝鮮이나은名物이며 年生産高萬二千餘圓을突破하고잇다

産業界를一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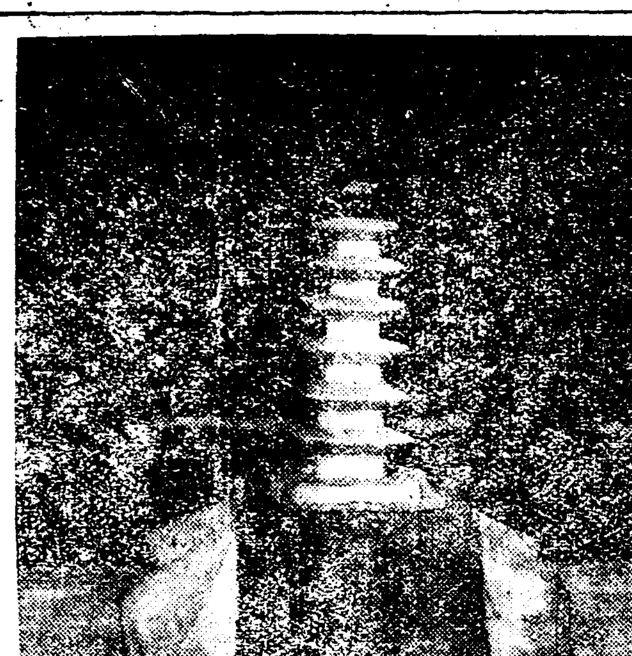
農家戶數一萬餘 純小作이僅二割

麟蹄蜂蜜은在來로有名

現下世界的大恐慌은 穀風的으로 大地를휩쓸어 餘地업시一般農家에까지도 旋風的으로襲來되어왓스며特히本地方은 再昨年以前의激甚한風水災로因하야 여지업시沒落過程에入하야 坊坊谷谷에서 痛哭聲이藉藉한 慘境에至하여 一般有志人士의憂慮하는바에잇섯스나 當局者의熱烈한活動과 地方有志諸氏의極力努心下에 今日에는復舊狀態에至하엿다 各産業界에잇서도 他地方에遜色이 업스리만치되어 一般住民等은擊壤歌를부르며 平和한生計를하고잇다

農業

農業에잇서서도 他地方에比하야 土地가肥沃한反面에 自然의惠澤을 밧고잇스며 딸아서 當郡農會에서 一般農民에게 蘇生의精神을 鼓吹시기는同時에 不眠不休의 指導로因하야 太道內로서도 優秀한成績을 나타내고잇스며 또本



◇……仁祖께서下賜하신玉塔

畜産

本地方은 地帶가廣闊하나平坦地가적으며 未開墾地가殆半임으로 一般土民이遊牧民의精과慣習이濃厚한同時에 當面神郡當局의 農家副業奬勵策의積極的活動으로因하야 勿論!牛에잇서서도 每戶當一頭二分平均의數字를보여 壓倒的成績을일우고잇는바 牛市場도麟蹄邑市場、北面元通市場、麒麟面縣里市場、內面倉村市場、瑞和市場等의五個所에달하고잇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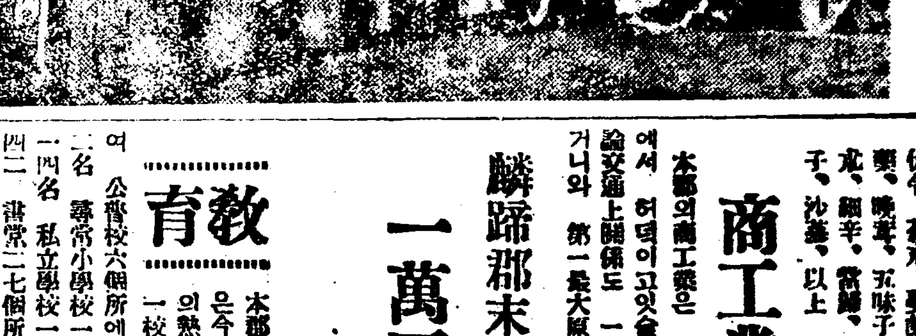
이에當郡에서는 압흐로一層一般農家의經濟를도읍기爲하야 五個年計劃事業으로 牛每戶當二頭平均을生育하도록活動中에잇는데各種畜産物은左記와如하다

牛	一二、三六七頭
馬	五五
騾	二三
驢	四五
豚	二、七六四頭
鷄	二〇、五六四羽
	以上

蠶業

郡內全戶數의 約九割이農家임으로當郡에잇서서도 農家唯一의副業인 養蠶熱이相當히發展되여 年生産高 五千餘石을突破하야잇는데 當地郡農會에서는 十個年擴張事業으로 年一萬石을 生産케하라고 熱心中인바 各面에模範部落을設定하고 每年品評會를開催하는同時에 奬勵指導員도派遣시기여積極的活動中에잇는데 現在模範部落은 다음과갓다

面名	里名	戶數
麟蹄面	德山里一區	四五戶
南面	新月里	四七
北面	月鶴里一區	四二
瑞和面	瑞和里	四四
麒麟面	縣里	三三
內面	美山里	二八



◇……麒麟面縣里 婦人會員一同

林業

國家의隆昌은 治山治水에잇다 딸아서地方發展의前提도治山治水일것이다 더욱이疊疊山峽의都市의發展과는 不可分離의交互的關係를 가지고잇슬것이다 朝鮮은在來로 愛林家가稀少하야 火田濫伐의惡習等이有하여 漸次林野의荒廢함을보게되엿스나 本郡만은人工林이別로업고 處女林이鬱蒼하야 야自然美의 詩的感興을주는方實로 그生産高는年十六萬餘圓에達하여 品質에잇서서도全國에서 次席을돌하는 成績을現出하고잇서서 國有林保護區만도五個所나有하여 木材生産出되는것은 全部가外地로輸出되여 만흔好評을밧고잇스며 그外에또藥草로 輸出되는것은다음과갓다

山人蔘、松茸、椎茸、石茸、伏令、蒼朮、薯蕷、獨活、芍藥、晩茸、五味子、桔梗、白朮、細辛、當歸、川芎、五倍子、沙蔘、以上

商工業

本郡의商工業은 不振의尖端에서 허덕이고잇슬뿐이다 勿論交通上關係도 一原因이되겟거니와 第一最大原因은 지난昭和五年度의 水害로市街地가全滅狀態에陷한後 新市街、舊市街가分離되어 市場의統一이不能하며 大轉地方民이農民임으로 自作自給의精神이薄弱한것도한原因이다 그러나他郡에比하야 자랑할만한것은商權만은 朝鮮人經營의商會가獨占하고잇서서 모—든 物價가統一的으로進行하고잇스며 物品價도他郡에比하야 約一割假量廉價임으로 一般住民은安心하고 物品을購入할만한이라 工業界에는 木器가主産物이되어 外地各處로輸出되어 品質良好의讚辭를밧고잇스며 其他工産物은 瓦外若干에不過하다

麟蹄郡未就學兒 一萬三千餘突破

一面一校制는完成

敎育

本郡의敎育狀況은今年度에郡民의熱誠으로一面一校制가完成되여 公普校六個所에生徒數八三二名 尋常小學校一個所生徒數一四名 私立學校一個所生徒數四二 書堂二七個所 生徒數四八一名 各校合하야 一三六九名인바 此를麟蹄全部內學齡兒童으로서 未就學兒童一萬三千餘名에比하면 不過一割에넘지못하는慘狀에잇어 一般有志人士의憂慮하는바며 當局者로서도 腐心中에잇는바 各校所在地名은다음과갓다

麟蹄公普校=邑內南北里
南面公普校=南面冠岱里
北面公普校=北面元通里
瑞和公普校=瑞和面瑞和里
麒麟公普校=麒麟面縣里
內面公普校=內面蒼村里
尋常小學校=邑內上東里
貞宜女學校=邑內上東里

悲運에陷한 麟蹄私立機關들

貞宜女校와幼稚園

麟蹄郡內에서 私立機關으로設立된것은 貞宜女學校와 幼稚園二個所밧게업다 貞宜女學校는大正二年二月에 宣敎部補助로設立以來 二十餘年間에達한바 今年四月부터는 突然히宣敎部의補助費가 縮少되여六年制學級을 四年制로 變更하고 先生三人이 敎授하던것을 單獨一人이現狀을 維持케하야 兒童敎授에 支障이不少한 現狀을보이고잇다 私立幼稚園은昭和三年에當面住民들의 熱烈한發起로設備히 創立은하엿스나 經費困難으로 保姆一人이助手도업시形式的에 지내지못하는敎授를한다는바 敎育熱의不足과 同情心이업는 麟蹄社會는 하로밥비 醵援에醵援을 加하야促進하기를要望한다

通信

通信機關으로는 六個面에郵便所가 一個所에不過하야 一般住民이莫大한 不便을늣기고잇으나 現郵便所長高橋氏의獻身的努力으로 配達夫를增員하는一方 配達徹底를主義로함으로 만흔도움을밧고잇다

麟蹄住民의生命線 麟襄道路完成渴望

難工事는着手不能

交通

本郡은山間僻地에나 京城으로兩二等道路가 貫通되엿스며 洪川 楊口方面으로通하는 三等道路가完備되어 中央地는交通不便의感이조금도업스나 二等道路沿岸南北兩個面을除外하고는 莫大한不便을늣기고잇다 더욱이麟蹄面에서起點이되어 麒麟面을經由하야 襄陽方面으로通하는麟襄線은 全郡民의經濟線이며 딸아서生命線이라하여도 過言은안이라할만큼 重要路線임으로 數年前부터懸案中이며 一般住民이一時라도 完通될날을切實히要望하는바이다 道當局에 數十次陳情하엿스나 全部가水泡도歸하고 再次郡面當局及住民의熱誠으로 麒麟面民은每戶當人夫四名式出役하야 工事에着手한바 半數는 完成되엿스나 經費不足으로 難工事는着手不能中에서 一般住民은 氣盡하야 道當局의處決만苦待되고 一時라도道路完成만渴望하고잇다 그뿐만안이라本郡에잇서 當面間路는麟蹄面 麒麟面間七十里 麟蹄 內面間百二十里 內面洪川間百四十里 內面平昌大和間八十里 麒麟 襄陽間百十里道路가 郡內經濟上重大한急先問題이라한다 이에麟蹄의風雲兒麒麟面長方氏는다음과가티말한다

方範疇氏 談

本面의 生命線은 道路입니다本人이面民에게非難을듯드라도 本面에自動車開通되는것을보고야 辭任하겟읍니다 百年計劃이라도 할豫定이엿고 麟襄線은全郡의生命線임으로 今秋에는難工事昇除外하고는 地方有志 消會議員等을上道케하야 陳情케하겟읍니다

金組負債만 每戶當百餘圓

◇個人貸付도相當

金融機關으로는 麟蹄金融組合 瑞和支所 麒麟支所、三個所의營業所와 郵便貯金管理所가一個所外 其他個人高利貸金業者가 幾個人有할뿐으로 金融融通上莫大한不便을 늣기고잇는데 雪上加霜으로個人貸金業者는 이를奇禍로法利以上幾倍의高利로 貸付貸穀함으로一般地方民은 莫大한損失을보고잇는反面에 穀價暴落、繭價暴落으로因하야 金組負債만도二十萬九千九百三十五圓인바 이를組合員一千八百九十九名에分配하면 每人當百十餘圓에達하는엄청난數字를 보이고잇다

名勝과古蹟

名山雪岳山 寒溪古城跡

深山峽谷에싸여大自然을자랑하고 人間處의厭勞場의稱號을맛고잇는 저—江原道麟蹄라는곳은 如何한곳인가?神聖、潔白、崇高함을表示하며 더욱이 名山으로서의金剛山과 아울러 關東의靈臺를늘니고잇는 雪岳山은果然어떠한곳인가?이제이곳主人들은 重重山峽의 寶玉을들어千載後民에끼처진 一香徒—나아가그靈跡을더듬고그活力을어더 萬人에게숨은古跡의鍾聲을 울려주랴한다

麟蹄北面瀾院里에서 洞谷里를지나 不路로흔한草路로 二十里를나려오면 光溪洞이다이光溪洞이라는곳은 물을것업시昔日이곳에建設되엿든 寺名으로 稱呼될일것거니와 이제와서는 光溪寺跡을理由하는地點이잇슬뿐이다 그가까운距離에얼마크지안흔 瀑布가잇서서 求是光溪의名稱을가지고잇다

그아래에鳥啄岩이란 큰바위가잇는데 相當히깁히패여 凹字形을일우엇다 이까닭은 겨울이면 數千마리의새들이 조아먹기때문이라한다 실상은바위를조아먹는것이아니라 그를속에잇는 버러지를 파먹는것이다

鳥啄岩으로부터 얼마아니가서 가는노인 큰河川이잇스니 이곳이곳寒溪이다

◇……名勝〃大勝瀑〃

그寒溪를끼고 얼마즘 가다가 左便으로 一兩村家를만나는곳에서 가는길을그대로버리고잠깐左岸山路를끼고오르게되는곳은 古跡地로有名한寒溪古城을찾고저함이다 길은그리險惡치안컨만은 너무나강파랏게 오르게됨으로 옛거룸에한거룸은 무릅까페를찢게되고 이고개를올라다시 松林속을헤처게되는데 이길을 城—끝이라한다 그러나이길도 坦坦大路! 얼마안이하야 이길의形跡도完全히업서지고 松林사이에는岩石、岩石사이에는 樹木이잇서서어데로가야할는지를주저케되다 千辛萬苦로 얼마쯤直行하면 城跡에달하게된다

이寒溪古城에關하야는 輿地勝覽과 文獻備考와및名山의東國名山記等에도 다 記錄되기는하엿스나 그仔細한歷史와構造에는言及한것이업슴으로 지금와서 殘跡아래서는 더욱說明할길이업다 다만 土着民들의말에依하면 新羅末年의 所築이라 傳한다 그러나 여기이殘跡에서 年前에 어떤한분이『至正十八年』이란年號를밝힌瓦片을어더 現在 當地郡廳에 保管中이라하니그것을보면 至正이元 順帝의 年號이며 그十八年은우리 高麗恭愍王七年(西紀一三五八年)에該當하다、그러면이城이 新羅終期에된것이안이라 高麗末葉에된것인지、그러치안흐면 新羅敬順王時에 築築한것을 四百年後 高麗恭愍王時에重修한일이잇는지는몰으겟스나 何如間兩者間에그어느것일것이다

城의周圍는 大規模로되엿든데 周圍는磨蓋할길이업고 또여과이一隅址게에는 殘跡도그림자도 차즐수가업거니와 城는大槪二十餘尺에나되겟고 城上의廢은 三層으로된 壘城이다 그리고只今남아잇는一部分이자 또한門이잇는자최인데 지금은後部가頹落하여 막혓슴으로 門이아니라 무슨굴처럼되어잇다

大勝瀑布

紫陽里에서 寒溪를끼고 그냥그대로 가면 一名寒溪嶺이라는 五色嶺을 넘어 藥水로有名한 五色洞이 잇서 醫界의 多病者에게 神效無比하다한다 여기서부터길은퍽急한角度를지어오르게된다 얼마안이하여 森林속을들어서게되는데 얼는보매 嶞落하게散列한岩中美觀일것은업는 森林이것만 中路岩上에올라瑠璨을들더보매 따로따로 떨어진것이 그대로서로억개를결처안즌光景이 도로혀눈을끄는林景이다

그러나이岩上에서 무엇보담도 南으로加里峯과連山疊嶂을바라볼것이 壯觀일것이다 右으로부터 보이는것이 加里峯、그다음으로 끄츰할가큰瀑으로 뼝—둘러파고도 안은瀑우등이 때어、밤을픈다면 한번에千萬石은 퍼넘는한것이어곳特有의『주걱峯』이다、또그다음으로 키도마추어 大中小인것이 父命을맛자와、携手하고 선것은 물을것업시 『三兄弟峯』이다 이岩路를넘어 金속을얼마가면、莊嚴하、耳膜을울니는、大勝瀑布이다、果然 萬丈大勝瀑이千尋에 墜落하는、神秘한 大光景은 岩上에서몸을제대로 갓자못할만한奇怪나壯觀일것이다

◇……〃龍湫〃의勝景

雪岳山主刹 百潭寺玉塔

積嶽瀾를끼고 約三十分餘만行하면 큰내를만나게된다이것은百潭洞水이다

여기서 右便西으로行하면永矢、五歲等庵子로 가는길이며 左便東으로 물을따라가면 百潭寺이다 百潭寺까지가는緊요에쫓谷의碧水靑石은 그로—그昭麗한 品으로는 金剛의長安洞과와갓다하겟다

이百潭寺의歷史에 關하야는 最初의前身으로말하면 新羅慈藏律師와 創建인寒溪寺인데그것이 羅末에瀾院의자리를잡엇든 寒興寺가되엿다가 그후다시高麗成宗三年(西紀九八四)에 變항을입어 업서지고後三年에 洞華後熙等이 古基의北六十里地에移建하고 深源寺라改名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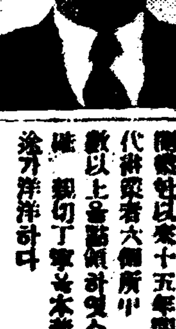
그深源寺—우리世宗二十四年(西紀一四四二)에 또다시 災害를맛나고 後二年에 海澄、聚雄等이 洞下三十里에 重建하고 從前寺라하엿다가 後九年에 또災害를 당하고 그後四年에 古趾의 西—里許地에 海敬寺가되엿든니成宗元年(西紀一四五六)에 그쇠마저雨災을입으니 明年에寺僧載益和 懷悅等이 古趾의上流二十里地에重建하고 百潭寺라命名하엿다

이러케百潭寺의名稱을어든後에도 그災害는적지안엇는데지난乙卯年(西紀一九一五)에 百潭寺가 또다시 寒災로變하고 지금잇는것은 後四年지금으로부터 十四年前에이山中五歲庵에居하든 印空老禪이重建한것이다 이에遺蹟으로생각하는바는 雪岳山及當地에 名勝古跡이許餘相所에達하나 紙面上關係로次號도미두운다

麟蹄郡內의 主要人物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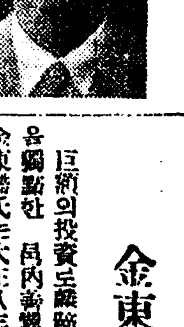
麟蹄郡守 鄭河亨氏

人望이놉흔麟蹄郡守鄭河亨氏는 京城昭格洞出生으로도 일즉이明治四十三年부터 總督府에勤務하다가 昭和六年十二月에麟蹄郡守로赴任以後 恒常民意를尊重이여겨 不撓不屈하고 郡民의福利增進을圖謀하기爲하야努力하는中 特히産業方面과地方發展에積極的活動하는人物로서 郡民의崇拜를밧고잇다



麟蹄의名醫 全一醫院長全秉勳氏

麟蹄郡에 唯一無二한醫療機關을經營하는全秉勳氏는 溫厚한人物로서 平壤醫學講習所實務主任으로多年間刀圭界에硏究를거듭하다가 昭和七年에이곳의公醫로 赴任되엿다 開業以來 아직歷史는길지못하나 麟蹄郡民六萬八千餘名의生命을 保護하야 嶺西地方에서는 名醫이가장놉흐며 特히慈善心이豐富하니만큼 無産大衆에게는加一層親切應診과 同情的施術을함으로우리社會에 참다운名醫이다



釀造界의元老 申悳休氏

快活勇敢하고 頭腦가明晳한氏는 二十四年前에京城으로부터 이곳에移居한後 昭和五年大洪水로麟蹄邑이家屋全部가浸水된當時市街地移轉問題에犧牲的活動을하야邑市街地를現新街로移轉케하야麟蹄郡에만흔功勞를남긴老人으로서 十餘年前부터邑內에서 大規模로醸造業을經營하는 社會的으로人望이두터운元老이다

社會에功勞잇는 代書業 李性欽氏

頭腦가明敏한氏는 일즉이黃海道信川으로부터이곳에왓다性格上强柔를 兼備하고社會에有望할뿐더러 貧民救濟와社會事業에만흔 功勞가잇고司法代書業開業以來十五年間이되엿스나 代書業者六個所中 取扱件數半數以上을點領하엿스며 敏速正確 親切丁寧을本義로함으로前途가洋洋하다

麟蹄面長 李鍾阜氏

昭和八年十一月에 新任된麟蹄面長李鍾阜氏는 일즉 京城私立普成高普校를마치고 多年間社會에獻身的事業을하다가 郡內의熱望으로 麟蹄金融組合長을歷任하고잇는氏이다 社會事業으로努力하는同時 面內事情과本郡發展을期하기爲하야 麟蹄面長으로就任한것인데 氏의明晳한頭腦로 地方을爲한萬般의計劃은着着進行되어 麟蹄를開拓할重鎭으로人望이놉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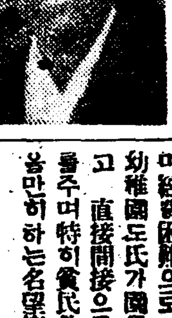
商業界의獨步 普翼商會主人 金東滿氏

巨額의投資로麟蹄郡의 商權을獨占한 邑內普翼商會支店主金東滿氏는大正八年九月에京城으로부터 이곳에와서 本店을洪川에다두고 支店을本邑 開業하엿다 氏는元來性格이圓滿하고上下로交際手腕이 能爛한社會的人物로서 商品을直輸入하야 顧客에게는 信用本位로親切叮嚀과薄利多賣를 主張함으로 날과時로進展擴張되는狀態에잇스며 出張所를北面元通里、麒麟面縣里三個所에다두고 大本營으로 活躍하는 年賣上高六萬餘圓에達하야 將來가有望할뿐더러 郡民의崇拜이놉다한다

南面面長 金夔洙氏

麟蹄社會에서 多角的人物은 南面面長金夔洙氏이다 氏는十五年前부터面事務所에勤務하다 大正九年에本面公普校設立當時에 萬人의耳目을 集中하든熱誠으로 必死的으로 活動한結果至今은 雄大한校舍까지 新築케한天眞爛漫한初等敎育에 福音을준恩人이다

青年實業家 金東洙氏



少年時代로부터 實業의模範的人物은 金東洙氏이다 氏는當年二十一歲의 靑年으로昭和三年에 當地瑞和公普校를卒業하고近里의 極貧者에게만흔救濟를施與하는 麟蹄社會의代表的人物의 靑年으로將來가有望한名望家이다

冠代公普校長 李鍾乙氏

敎育界의 二十餘星霜을獻身努力한李鍾乙氏는昭和七年三月에本校로赴任한以來 兒童敎授에熱烈하게犧牲的努力을다하야 特히性格이 溫厚仁慈하야 敎育界의代表的人士이다

實業家 朴鍾麟氏

氏는南面九萬里의 代表的實業家로서 大衆解決을爲하야는 多大한犧牲을하여왓거니와 今後에도 獻身的努力을하기로決心實行하는將來가有望한靑年이다

麟蹄幼稚院長 金基璿氏

氏는麟蹄郡에서 屈指하는富豪로 性格이仁慈한篤實한人物이다 氏는京畿道江華郡에서 이곳에移居한지 十餘年間에敎育事業과社會事業에 만흔貢獻이잇스며經費困難으로 해메이는私立幼稚園도氏가園長의重任을가지고 直接間接으로多大한 援助를주며特히貧民救濟와慈善事業을만히하는名望家이다

頭腦明晳한 李鍾衡氏

麟蹄郡에有數한富豪오 頭腦가明晳한 前麟蹄面長李鍾衡氏는 郡民을爲하야 地方을爲하야만흔苦心을하엿다 氏는지난庚午年大洪水時에도災民에게만흔同情의活躍을鼓吹하엿스며 特히性格이溫順仁慈하야 社會의名望이놉나

女性界中堅 韓信聖氏

氏는昭和七年에平壤으로부터 本郡에온以來女性界의 中堅이되여 만흔活動을하고잇는데 自體의檢素한과 獻身的努力에對하야 一般住民의崇拜를一身에밧고잇스며 現在는東里婦人會長으로잇서서 猛活動을하고잇다

社會의功勞者 金永濟氏

氏는慶尙北道慶州出生으로 일즉이 二十八年前에本郡으로移住한以來 一般民衆公益事業에라면 爲先氏의손을거치게와하면아니된다 더욱이去春에는 江原消議員으로 被選된以後本郡의發展向上에 直接間接으로必死的活躍함은 消氏의周知하는바이며 其他多年間社會事業에功勞가만흔本郡의唯一無二한代表的名望이놉흔人物이다

模範靑年의 李鍾郁氏

氏는當年二十九歲의靑年으로 大正十一年 三月에邑內普校를卒業한후 實業界에뜻을두고前當貧民救濟에 同情心이만흔本郡의 代表的靑年이다 지난昭和五年大洪水時에本郡邑內家屋全部가浸水又는流失되는當時人命이風前燈火의 狀態에陷혓슴을보고氏는水難을 防禦하는일와 水中에들어가 人命을救護까지한靑年으로 江原道知事의賞狀까지어든模範的靑年이다

紹介版을내면서

支局長 張好福

絶景의王國、悲戀의殿堂、新羅末葉의遺跡인 幾百年以來 고달픈 惰眠에잠겨 피와눈물에하소연을하는 그規模의雄壯함과 華麗한峽間華都의 産業과經濟와 將又文化、交通各般에亘하야 그狀態를 널니紹介코저하며 更히此機會에숨은寶玉幾萬人의觀客을吸收하라는 雄大한雪岳山을늘어 實觀을乞하며 相携하야 그開發을圖하고 地方發展에寄與하는바이다 그러나 微微한吾人의힘이 斷微鏡的이며 交通上不便과 吾人의不誠意와同時에 紙面上關係로 郡內狀況을詳細히紹介치못함을甚히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며 地方賢明한人士諸氏의深諒과 아울너 本支局創設以來 熱烈한支持와 多大한後援下에 順步되엇슴을 玆에紙上으로感謝함을 表示하며 一層압흐로 本支局의 主人公이되어 熱烈한愛護가잇기를바란다